

‘일본다문화  
구제기금(JMRF)’  
결성한  
하경희씨



“사상 최악 대지진”  
“일본 9.0 강진”  
“평온했던 도시가 쑥대밭”

일본 대지진과 차별로 이중고 당하는 재일동포를 위해

지

난해 3월 11일 오후,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과 높이 10m에 이르는 쓰나미가 해변도시 미야기현 나토리시를 덮쳤다. 일본 현지를 포함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대재앙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지역 일본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남겨둔 가족 생각에 연일 새로운 뉴스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 무리 중에서도 태산같은 걱정에 마른침만 삼키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한인이 있었다. 바로 UC샌디에이고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하경희씨. 한국계 일본인 즉 재일교포인 하씨, 그녀를 제외한 온 가족은 일본에 살고 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확인한 결과 가족들은 다행히 무

사했지만 하씨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않았다. 피해를 당한 수많은 일본인에게 세계 곳곳에서 구호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지만 과연 재일교포들에게 동등한 혜택이 미칠까 싶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자라면서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을 몸소 겪어본 하씨였기에, 당연히 피해 속에서도 동등치 못한 처우를 받을 그들이 애처롭고 안타까웠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 만은 없던 그녀는 사태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채 안돼 캘리포니아에 와 있는 또 다른 재일교포 친구들과 연락해 일본 다문화 구제기금(Japan Multicultural Relief Fund:JMRF)을 결성했다. 그때부터 줄곧 활동을 펼쳐 지금까지 약 6만불 가까이 모으는 성과를 이뤘다.

“쓰나미 소식을 들은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편히 앉아 공부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씨는 UCSD 박사과정(소수)민족학 전공)으로 오기 전엔 UC 버클리를 다녔던지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간 그 지역에서 만난 재일교포 친구들과 ‘Eclipse Rising’이라는 미주 재일교포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들 멤버들과 힘을 합쳐 일본 태평양 네트워크(Japan Pacific Resource Network)를 통해 비교적 재빠르게 JMRF를 결성할 수 있었다.

하씨는 “저희는 일본에서 아직까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재일교포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이런 대형 사태 때는 구호의 손길도 공정하게 나눠받지 못하는 층이 재일교포들이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도움을 전달할 수 있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고 취지를 밝힌다.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의 한국민족학교인 ‘우리학교’는 일본정부에서 정당한 학교로 인준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기부금도 제대로 할당 받지 못했다. 또한 후쿠시마의 싱글맘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노동자 등 소수계들은 일반적인 일본인들에 비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JMRF는 재일교포 속에서도 소외돼 이중의 고통을 받는 소수계들을 나서서 돕고자 하는 것이다.

하경희씨는 사실 미주 내 한인 커뮤니티에는 선뜻 홍보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솔직히 제가 잘 나서질 못해요. 그리고 한국어도 그리 잘 하지 못해요. 주위에 한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도 부담이 될까봐, 홍보에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살든지 인류애, 민족애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아무리 충격적인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잊혀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제일 걱정되는 건, 그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차별대우로 평등한 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최대한 이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수민족’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일동포의 역사를 알려, 그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주고 싶다는 마음 뿐입니다.”

글: J.S.

Japan Multicultural Relief Fund에 대한 자세한 정보 relief\_JPRN.org  
이메일: EclipseRising@gmail.com

